

# 한·일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어휘 고찰\*

- 품사별 사용빈도 상위어 비교를 중심으로 -

송정식\*\* · 이미숙\*\*\*

## 〈 要 旨 〉

본고에서는 한·일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비교를 통해 양국 교과서 어휘에 나타나는 언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품사별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명사에서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형식명사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교과서의 경우는 수(57), 것(26), 때(25) 등의 사용빈도가 높고, 일본교과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こと(59), ん(28), とき(27) 등의 형식명사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대명사에서는 양국 교과서 모두 인칭대명사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우리(44), 내(42), 나(40) 등의 단어가 빈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고빈도어로는 스ーホ(37), だれ(29), すみれちゃん(26), ぼく(22), わたし(16), きみ(12) 등의 인칭대명사 사용 비율이 높아 한국과 거의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동사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는 있다(59)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어 '있다'에 대응되는 'ある'동사가 45회나 사용되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형용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좋아하는 감정 표현과 색상, 양,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위어로 조사 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에 비해 개별어수 전체어수 모두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국의 경우는 관계성(서로, 함께 등)을 나타내는 부사와 수량(많이, 모두, 다 등)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이유나 원인 방법(예, 어떻게 등)과 관련된 부사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수량과 빈도(みんな, よく, たくさん 등)를 나타내는 부사, 시간(もう, まだ, ずっと, すぐに 등)과 관련된 부사, 그리고 방법(そう, こう, どう 등)을 나타내는 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동사의 경우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정중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한국의 '습니다'(307)와 '비니다'(92) 그리고 '입니다'(16)를 합치면 415번 사용되어 1위가 되고, 일본의 경우는 'ます'(414)와 'です'(101)를 합치면 515회로 1위가 된다. 마지막으로 기호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 )'(점표)가 261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808회 사용된 '( )'(마침표)에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수량이다. 즉 한국 국어교과서에는 사실상 하나의 문안에 점표가 사용되는 용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문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 중간에 '( )'(점표)를 찍어서 아동학습자가 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논문분야 : 어휘

키 워 드 :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 개별어수, 전체어수

## 1.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한·일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비교를 통해 한·일 양국 교과서 어휘에 나타나는 품사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 2A-A00112)”

\*\* 인하공업전문대학 조교수(일본어학·어휘론전공)

\*\*\* 명지대학교 교수(일본어학·대조언어학전공)

별 상위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는 선행연구인 송·이(2012)“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고찰”<sup>1)</sup>의 후속 연구로 1학년 교과서에 비해 전체어수의 양이 2배나 증가된 2학년 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품사별 사용빈도 상위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종래의 교과서 어휘 연구는 교과서에 사용된 개별 단어들의 사용 양상이나 유의어 등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휘 분석대상도 전체가 아닌 소수의 특정한 단어들을 대상으로 고찰한 개별어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비교 대상이 한·일 양국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자립어와 부속어(조사 및 기호 등)를 포함한 어휘 전체이며 또한 가장 최근에 제작된 교과서 어휘이기 때문에 양국 교과서의 어휘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일 양국의 경우 교과서에 관한 어휘연구는 교육기본어휘<sup>2)</sup> 선정 등과 관련하여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에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금번 한·일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2학년 어휘 전체에 대한 비교 연구는 저학년에 있어 양국 국어교과서 어휘의 교육기본어휘적 특징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어휘 조사 대상 자료는 2011년 현재 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국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와 일본 소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이다.

## 2. 선행연구 및 연구동향

어휘연구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어휘의 구성 요소인 각각의 단어의 집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휘가 갖는 수량적 성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송·이(2012)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國立國語研究所)의 경우이다. 일본에서 어휘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시점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며, 1948년에 설립된 국립국어연구소가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 의한 일련의 대규모 어휘 조사에서는, 어휘를 계량적으로 취급해, 품사별·어종별·어구성별로 현대 일본어의 어휘가 갖는 어휘의 일반적인 특징 및 수량적인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마무라나오미(島村直己:1983)의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교과서 연구의 경우인데, 실제로 시마무라 이전에 이루어졌던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어휘연구에 있어서 한쪽 편 즉 개별어수만을 다루든지 전체어수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다만 어느 한 쪽이 어휘 전체를 대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 왔다는 점이다.

시마무라는 개별어수와 전체어수<sup>3)</sup>의 양쪽 모두를 채택하여 품사별 구성 관계, 어종별 구성 관계, 표제어의 교과서간 공통성 등 국어교과서 어휘의 다양한 사실들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어휘 연구의 큰 방향을 제시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어서 한·일간의 어휘를 비교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민철(2001), 이용백(2004) 등에서 한·일 초등학교

1) 송정식·이미숙(2012)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고찰」 『日本語學研究』 第34輯 韓國日本語學會  
 2) 교육기본어휘는 국어교육 또는 외국어교육을 목적으로 대량 어휘 조사에 의해 선정된 기본어휘를 가리키며 주로 사용빈도가 매우 높고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를 선정한다.  
 3) 개별어수는 異語와 같은 의미로 영어로는 Different Words이다. 전체어수는 延語와 같은 의미로 영어로는 Running Words이다.

기본 어휘 비교가 시도되었으며, 송정식·이미숙(2012)에서 최근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어휘연구가 진행되었다.

신(2001)은 비교 어휘연구의 방법인 「의미 분야별 구조 분석법」을 통해 일본어·한국어의 어휘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밝히고 그 유의차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신(2001)이 지적하고 있는 유의차의 원인으로는 ‘자료’ ‘언어구조’ ‘어종’ ‘문화’ 등의 4가지로 일본어의 ‘초등학생 기본어휘’에는, 한국어의 ‘초등학생 기본어휘’에는 선정되지 않는 외래어, 의성어·의태어, 인사 표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유의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2004)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사용, 어휘 총체론의 입장에서 한·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국 교과서 어휘는 언어 구조의 차이, 언어의 종류에 따른 차이, 문화의 차이, 자료의 차이 등 두 언어의 다양한 차이점을 고찰되었다. 이(2004)의 연구에 의하면 국어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보다 기본어휘라고 할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기본어휘로서의 특징은 물론 개별 어휘의 특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2004)의 연구는 1-6학년 전 과정에 대한 방대한 양의 어휘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양국 교과서에 나타나는 품사별 특징 등을 기술하는데에는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송·이(2012)에 의하면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비교라는 제한된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국의 유사점 및 차이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명사에서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형식명사 사용이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양국 모두 친족명사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한국의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등의 단어가, 일본은 ‘おばあさん’과 ‘おじいさん’이라는 단어 사용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대명사에서는 양국 교과서 모두 인칭대명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동사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하다’ 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하여 많이 쓰였는데 일본의 경우도 한국어 ‘하다’에 대응되는 ‘する’ 동사가 많이 사용되어 상호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형용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감정 표현과 색상, 능력, 밝기를 나타내는 단어들 상위로 조사 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에 비해 개별어수 전체어수 모두 적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이(2012) 연구를 통해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양국 교과서 모두 개별어수포함 전체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양적인 부분의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어수의 양이 2배나 증가된 2학년 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양국 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휘 조사 자료는 어휘 조사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다양한 언어 연구에 기초자료로 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 어휘 조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한·일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어휘 조사 대상 자료를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어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2009) 『국어 읽기』 2-1/2-2 미래엔 컬쳐그룹

일본 : 宮地裕의(2011) 『こくご』 2上/2下 光村図書(文部科学省検定済教科書)

다음으로 어휘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이다. 어휘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송·이(2012)에서 언급하였으나,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간단하게 기술하면, 어휘 연구는 ‘대상어휘의 선정’, ‘어휘 조사’, ‘어휘의 비교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어휘 조사’라 할 수 있다. 이하,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 대상 교과서 문장을 문서화하여 텍스트파일로 만든다. 다음으로, 어휘 조사 단위로서 분할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개별어로 분할 작업을 실시한다. 그 다음에는 예문과 소재를 갖춘 어휘표 작성을 위해 데이터의 프로그램 처리를 행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어휘 조사표가 완성되면 다음 단계로는 어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어휘에 나타난 한·일 양국 교과서 어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 어휘 조사의 경우, 조사(단어분할) 기준은 다지마이쿠도(田島毓堂:1999)에 근거하여 최초 문절로 분할한 후 다시 자립어와 부속어로 분리하여 단어를 추출하였다.<sup>4)</sup> 한국어의 경우는 일본어 문절대신 어절을 근거로 일본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할하였다. 이하 한·일 초등학교 2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국어교과서 어휘 조사 대상 및 단어별 분할 예)를 정리하여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교과서〉

- 1) ‘읽어봅시다’부분 전문 입력
- 2) ‘글:백석, 그림:유애로’와 같이 저자 부분 포함
- 3) 글자를 넣어서(만들어서) 읽는 부분의 단어는 제외
- 4) ‘말씀에 답하여봅시다’, ‘알아봅시다’부분에 사용된 내용은 제외
- 5) ‘읽어봅시다’부분에서 본문 내용과 동일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예 : 깜장 흙 속의 푸른 새싹들이.....)
- 6)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부분 제외
- 7) ‘놀이터’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본문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제외
- 8) 각 과의 본문에서 그림에 대한 설명부분은 포함하나, 그림(자체)은 제외  
(예: “현무, 백호 등의 그림”(제외) : “환한 빛은 해와 달에서 나오는 거란다.” (포함))

한국교과서 단어 분할 예)

<p>국어 읽기 2-1</p> <p>1, 느낌, 을, 말해, 요, 005, 01,                  호랑나비, 이준관, 005, 02,                  호랑나비, 호랑호랑, 005, 03,                  봄, 이, 왔, 다, 호랑호랑, 꽃, 이, 폼, 다, 호랑호랑, 005, 04,                  영치기, 영차, 박소농, 006, 01,                  깜장, 흙, 속, 의, 푸른, 새싹들, 이, 006, 02,                  흙덩이, 를, 떠밀, 고, 나오, 면서, 006, 03,                  히-, 영치기, 영차, 히-, 영치기, 영차, 006, 04,                  돌팍, 밀, 에, 예쁜, 새싹들, 이, 007, 01,</p>
--

4) 田島毓堂(1999) 『比較語彙研究序說』 笠間書院

돌파, 을, 떠밀, 고, 나오, 면서, 007, 02,  
 히-, 영치기, 영차, 히-, 영치기, 영차, 007, 03,  
 흙덩이, 도, 무섭지, 얇, 고, 007, 04,  
 돌덩이, 도, 무섭지, 얇은, 아기, 싹들, 이, 007, 05,  
 히-, 영치기, 영차, 히-, 영치기, 영차, 007, 06,

〈일본 교과서〉

- 1) 한국어 교과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력
- 2) 단 한자에 대한 요미가나 부분은 입력에서 제외

일본교과서 단어 분할 예)

国語 二上

ふきのとう, くどうなおこ, さく, でくねいく, え, 004, 01,  
 よ, が, あげ, まし, た, ., ., あさ, の, ひかり, を, あび, て, ., ., 005, 01,  
 竹やぶ, の, 竹, の, はっぱ, が, ., ., 「, さむかつ, た, ね, ., ., 」, 005, 02,  
 「, うん, ., ., さむかつ, た, ね, ., ., 」, と, ささやい, て, い, ます, ., ., 005, 03,  
 雪, が, まだ, すこし, の, こつ, て, ., ., 005, 04,  
 あたり, は, しんと, し, て, い, ます, ., ., 005, 05,  
 どこか, で, ., ., 小さな, こえ, が, し, まし, た, ., ., 006, 01,  
 「, よいしょ, ., ., よいしょ, ., ., おもたい, な, ., ., 」, 006, 02,  
 竹やぶ, の, そば, の, ふきのとう, です, ., ., 006, 03,  
 雪, の, 下, に, あたま, を, 出し, て, ., ., 雪, を, どけ, よう, と, ., ., 006, 04,  
 ふんばつ, て, いる, ところ, です, ., ., 006, 05,  
 「, よいしょ, ., ., よいしょ, ., ., そと, が, 見, たい, な, ., ., 」, 006, 06,  
 「, ごめん, ね, ., ., 」, と, ., ., 雪, が, 言, い, まし, た, ., ., 006, 07,  
 「, わたし, も, ., ., 早く, とけ, て, 水, に, なり, ., ., とおく, へ, いつ, て, 006, 08,  
 あそび, たい, けど, ., ., 」, と, ., ., 上, を, 見上げ, ます, ., ., 007, 01,  
 「, 竹やぶ, の, かげ, に, なつ, て, ., ., 007, 02,  
 お日さま, が, あたら, ない, ., ., 」, と, ざんねん, そう, です, ., ., 007, 03,

#### 4. 한·일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품사별 비교 및 어휘 고찰

한·일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를 조사하여 기호와 문자를 포함하여 총 13가지 형태의 품사로 분류, 개별어수와 전체어수 비교 및  $\chi$ 自乘値를 제시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대명사의 경우는 명사에 포함하고 의성어나 의태어 등은 부사, 보조동사는 동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으나 양국 국어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분류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표 1) 한·일 2학년 국어교과서 품사분류에 의한 개별어수와 전체어수 비교

품사분류	개별어수				$\chi$ 自乘値	전체어수				$\chi$ 自乘値
	국어 읽기 2		国語二			국어 읽기2		国語二		
	도수	비율(%)	도수	비율(%)		도수	비율(%)	도수	비율(%)	
1) 명사	848	39.35%	658	43.23%	5.556	2763	22.01%	1989	18.85%	<b>34.866</b>
2) 대명사	91	4.22%	57	3.75%	0.524	418	3.33%	235	2.23%	<b>25.330</b>
3) 동사	514	23.85%	380	24.97%	0.602	1486	11.84%	1126	10.67%	<b>7.718</b>
4) 형용사	132	6.13%	82	5.39%	0.883	316	2.52%	206	1.95%	<b>8.260</b>
5) 부사	207	9.61%	151	9.92%	0.100	510	4.06%	321	3.04%	<b>17.172</b>
6) 접속사	18	0.84%	19	1.25%	1.519	79	0.63%	75	0.71%	0.578
7) 연체사	21	0.97%	13	0.85%	0.138	116	0.92%	92	0.87%	0.172
8) 감탄사	30	1.39%	15	0.99%	1.212	51	0.41%	26	0.25%	4.402
9) 의성/의태어	59	2.74%	29	1.91%	2.638	96	0.76%	56	0.53%	4.792
10) 보조동사	107	4.97%	42	2.76%	11.149	1577	12.56%	1624	15.39%	<b>38.577</b>
11) 조사	109	5.06%	58	3.81%	3.194	3471	27.65%	2695	25.55%	12.907
12) 문자	1	0.05%	2	0.13%	0.768	1	0.01%	2	0.02%	0.531
13) 기호	19	0.84%	16	1.05%	0.449	1671	13.31%	2102	19.93%	<b>183.672</b>
총합계	2155	100%	1522	100%		12555	100%	10549	100%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2학년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가 2,155어, 전체어수가 12,555어이고, 일본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가 1,522어, 전체어수는 10,549어로 한국 국어교과서 쪽이 개별어수는 633어, 전체어수는 2,006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 2학년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의 평균 사용률은 약 5.83회(12,555/2,155) 정도이며, 일본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의 평균 사용률은 6.93회(10,549/1,522)로 한국교과서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품사분류에 있어 보조동사 및 문자와 기호를 포함하여 분류한 것은 양국교과서에 나타나는 모든 문자 정보를 취합하여 실제 어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 1학년 국어교과서의 주요 품사들을 보면 개별어수와 전체어수 모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다만  $\chi$ 自乘値 결과를 보면 1)명사, 2)대명사, 3)동사, 4)형용사, 5)부사의 등 주요 품사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가 유의(有意)의 대(大)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고, 일본 교과서는 10)보조동사, 13)기호 등의 경우가 유의(有意)의 대(大)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유의(有意)의 대(大)에 해당하는 항목은 <표 1>에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였다.

이하 각 절에서 주요 품사 및  $\chi$ 自乘値 결과 유의차가 두드러진 항목을 토대로 양국 국어교과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명사

명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848어, 전체어수는 2,763어로 개별어 1단어가 평균적으로 3.26회로 사용되

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개별어가 658어, 전체어수 1,989어로 1단어가 3.02회 사용되어 한·일 모두 거의 비슷한 정도의 단어 사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개별어수 측면에서 보면 명사의 경우, 한국은 전체어수 2,155어중 848어로 약 39.35%인데 비하여, 일본은 전체 1,522어중에서 명사가 658어로 43.23%를 차지하여 한국보다 약 4%정도 명사 사용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up>5)</sup> 반면에 전체어수 측면에서는 한국은 전체어수 12,555어중 2,763어로 약 22.01%인데 비하여, 일본은 전체 10,549어중에서 명사가 1,989어로 18.85%를 차지하여 한국보다 2%정도 명사 사용 비율이 적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chi$ 自乗値 결과를 보면 개별어수에서는 일본 쪽이 유의(有意)의 대(大)로, 그리고 전체어수에서는 한국 쪽이 유의(有意)의 대(大)로 확인되었다.

이하 사용빈도가 높은 한·일 양국 국어교과서의 명사들을 제시하여 양국 교과서 어휘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명사의 경우는 단어수도 많고 사용빈도도 높기 때문에 7회 이상 사용된 단어 중에, 먼저 한국 국어교과서 명사를 제시하고, 이어서 일본 국어교과서 명사를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제시된 단어 옆 ( ) 안에 제시된 수량은 개별어의 사용빈도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사용빈도 상위어와 특징적인 단어에는 획이 굵은 글씨체(수, 물, 어머니 등)로 나타냈다.(이하 동일)

#### 〈한국 교과서〉

수(57), 물(45), 어머니(35), 집(35), 말(30), 해(29), 사람들(28), 길(27), 호랑이(26), 것(26), 때(25), 달(24), 불개(23), 옛날(21), 곳(20), 모습(18), 하나(18), 마을(17), 아들(16), 웅달샘(16), 일(16), 그때(15), 뒤(15), 마음(15), 생각(15), 소리(15), 고래(14), 산(14), 선생님(14), 장승(14), 얼굴(13), 위(13), 이(13), 친구들(13), 로봇(12), 숙제(12), 이름(12), 개구리(11), 독도(11), 사또(11), 사람(11), 이방(11), 그물(10), 불(10), 아이(10), 옷(10), 자기(10), 지구(10), 책(10), 형(10), 병(9), 개미(9), 나무(9), 날(9), 놀이터(9), 동물(9), 머리(9), 방(9), 별나라(9), 속(9), 아무(9), 아버지(9), 앞(9), 어름치(9), 옷감(9), 임금님(9), 장생초(9), 코끼리(9), 학교(9), 호수(9), 고개(8), 고기(8), 나라(8), 동전(8), 몸(8), 산딸기(8), 손(8), 시(8), 시간(8), 쓰레기통(8), 안(8), 양반(8), 어부(8), 일기(8), 코뿔소(8), 할머니(8), 흙(8), 힘(8), 눈(7), 다리(7), 돋보기(7), 모양(7), 발(7), 선물(7), 속담(7), 쓰레기(7), 아주머니(7), 어린이(7), 오늘(7), 운동장(7), 이야기(7), 입(7), 지금(7), 이하 생략

#### 〈일본 교과서〉

こと(59), 박케쯔(57), きつねのこ(45), しろうま(39), ん(28), とき(27), ひと(25), ところ(24), もの(22), がまくん(21), おてがみ(19), かえるくん(19), はな(19), くまのこ(18), あめ(16), なか(16), 카드(15), みず(15), うさぎのこ(14), おに(13), とのさま(13), ひ(13), ようす(13), うえ(12), え(12), き(12), うま(11), しかけ(11), あさ(10), うた(10), からだ(10), ことば(10), だい(10), ぶん(10), おにごっこ(9), おねえさん(9), きもち(9), さかな(9), した(9), そと(9), まえ(9), ひとつ(9), あそびかた(8), いえ(8), かお(8), がっき(8), くさはら(8), そば(8), たんぼぼ(8), つぎ(8), なに(8), なまえ(8), み(8), ゆき(8), あいだ(7), あと(7), いちにち(7), かぜ(7), かたつむりくん(7), 코스모스(7), そら(7), たね(7), つき(7), どうぶつ(7), どうぶつ

5) 송·이(2012, pp.94-95)에서는, 1학년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 측면에서 보면 명사의 경우, 한국은 전체어수 1,574어중 591어로 약 37.55%인데 비하여, 일본은 전체 1,152어중에서 명사가 550어로 47.74%를 차지하여 한국보다 약 10%정도 명사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えん(7), はる(7), はるかぜ(7), わたげ(7), 이하 생략

위에 제시된 사용빈도 상위어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수(57), 물(45), 어머니(35), 집(35), 말(30), 해(29), 사람들(28), 길(27), 호랑이(26), 것(26), 때(25) 등의 단어가 2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 들이며, 일본의 경우는 こと(59), バケツ(57), きつねのこ(45), しろうま(39), ん(28), とき(27), ひと(25) 등의 단어들이 2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다. 위에 제시한 양국 교과서의 고빈도어들(고빈도어 아래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 - 이하동일)의 실제 교과서 사용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어〉

- (1) 그래도 평생 옷 한 벌로 살 수는 없잖아? (2-1, p.11)\*
- (2) 물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2-1, p.86)
- (3) 어머니께서는 내가 쓴 시를 읽으며 흐뭇해하셨다.(2-2, p.65)

\* (2-1, 11): 2-1은 2학년1학기 한·일국어교과서, 11는 페이지를 의미함.(이하 동일)

#### 〈일본어〉

- (4) たねをとおくまでとば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2-1, p.24)
- (5) きつねの子は, バケツを真上から見下ろしました. (2-1, p.68)
- (6) きつねの子は, 朝までぐっすりねむりました. (2-1, p.83)

위에 제시된 명사 단어들을 살펴보면 한국 국어교과서와 일본 국어교과서의 경우, 상호간 유사한 내용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한국교과서의 경우는 형식명사에 해당하는 수(57), 것(26), 때(25) 등의 사용빈도가 높고, 일본교과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こと(59), ん(28), とき(27) 등의 형식명사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동식물 및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말(30), 해(29), 호랑이(26), 달(24), 불개(23) 등의 단어가, 일본은 きつねのこ(45), しろうま(39), がまくん(21), かえるくん(19), はな(19), くまのこ(18)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다. 특히 일본 국어교과서의 경우는 가まくん(21), かえるくん(19), くまのこ(18), うさぎのこ(14), かたつむりくん(7) 등과 같은 의인화된 단어 사용이 매우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 2) 대명사

대명사의 경우, 1학년 교과서 어휘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칭과 지시 장소 등에 관한 대명사와 더불어 고유명사로 볼 수 있는 이름들을 대명사로 분류하여 양국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대명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91어, 전체어수는 418어로, 1단어가 평균적으로 4.59회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개별어가 57어, 전체어수 235어로 1단어가 평균적으로 4.12회 사용되어 한국과 일본교과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chi$ 自乗値 결과를 보면 한국 쪽이 전체어수 면에 있어서 유의차가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명사의 경우, 한국 교과서의 개별어수 사용빈도가 많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개별어수가 많지 않으므로 사용된 모든 단어들을 제시해 보면 개별어수 및 전체어수는 다음과 같다.

## 〈한국 교과서〉

우리(44), 내(42), 나(40), 반쪽이(18), 어디(14), 민지(12), 수영이(12), 그(11), 네(11), 툭툭이(10), 누구(9), 수민이(9), 여기(9), 제(9), 칠성이(8), 설문대할망(7), 주혜(7), 훈이(7), 저(6), 풍풍이(6), 기름장수(5), 너희(5), 방환이(5), 수진이(5), 제주도(5), 거북할아버지(4), 너(4), 누가(4), 지우(4), 형섭이(4), 그것(3), 그계(3), 그곳(3), 이것(3), 장서방(3), 철규(3), 소라어머니(2), 수민(2), 이계(2), 이곳(2), 저기(2), 저희(2), 정우삼촌(2), 종수(2), 지수(2), 구름할아버지(1), 김일광(1), 김종상(1), 다리미소저(1), 당신(1), 무엇(1), 민희(1), 박경용(1), 박소농(1), 반쪽야(1), 백록담(1), 백석(1), 사석원(1), 성덕제(1), 성욱(1), 소라(1), 순영이어머니(1), 아무(1), 여기는(1), 여기저기(1), 영호(1), 오철규(1), 용우(1), 유애로(1), 유진(1), 윤석중(1), 윤태규(1), 이규경(1), 이들(1), 이준관(1), 이준연(1), 자네(1), 자부인(1), 정두리(1), 정수민(1), 정승각(1), 정우네(1), 정지용(1), 조성자(1), 조수진(1), 지석이(1), 지우네(1), 철호(1), 철호어머니(1), 철호엄마(1), 푸른꿈도서관장(1),

## 〈일본 교과서〉

스ーホ(37), だれ(29), すみれちゃん(26), ぼく(22), わたし(16), きみ(12), スイミー(11), それ(11), かりんちゃん(10), そこ(5), かりん(4), じぶん(3), どこ(3), あなた(2), コスモスさん(2), アーノルド=ローベル(1), あいつ(1), あおやまゆり(1), あそこ(1), あちら(1), いしいむつみ(1), いちかわしゅん(1), うえだみや(1), うえむらとしお(1), おおつかゆうぞう(1), かわむらおさむ(1), きくらありさ(1), くどうなおこ(1), くろいけん(1), こちら(1), こんすけ(1), さかいまさし(1), さかたほろお(1), さつただし(1), スイミー=レオ=レオニ(1), せとあきら(1), たにかわしゅんたろう(1), たにかわしゅんろう(1), つかもとやすし(1), つちだよしはる(1), でくねいく(1), どこか(1), どっち(1), どれ(1), なかむらまみさん(1), はせみり(1), ひろのゆうすけさん(1), ふるうちひかる(1), まどみちお(1), みきたく(1), もりさん(1), もりしたはるみ(1), もり야まみやこ(1), よだじゅんいち(1), リー=リーシアン(1), わし(1), わたしたち(1),

위에 제시된 사용빈도 상위어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는 우리(44), 내(42), 나(40), 반쪽이(18), 어디(14), 민지(12), 수영이(12), 그(11), 네(11), 툭툭이(10) 등의 단어가 10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 들이며, 일본의 경우는 스ーホ(37), だれ(29), すみれちゃん(26), ぼく(22), わたし(16), きみ(12), スイミー(11), それ(11), かりんちゃん(10) 등의 단어들이 10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다. 위에 제시한 양국 교과서의 고빈도어들을, 한국의 경우는 우리(44), 내(42), 나(40),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스ーホ(37), だれ(29), すみれちゃん(26)에 대한 실제 용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교과서〉

- (7)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2, p.90)
- (8) 우리반에서 키가 가장 큰 형섭이가 내 뒤를 따라왔다. (2-1, p.102)
- (9)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학교 누리집을 찾아보았다.(2-2, p.65)

## 〈일본 교과서〉

- (10) 스ーホはいくばんもねむれませんでした。(2-2, p.105)
- (11) 「今まで、だれも、お手紙くれなかったんだぜ。(2-2, p.11)
- (12) すみれちゃんは、つぎのページをひらきました。(2-2, p.59)



## 〈일본 교과서〉

いう(83), ある(45),みる(35),する(34),くる(26),かく(20),できる(19),いく(13),いる(12),いれる(12),さく(12),おもう(11),かえる(11),かんがえる(11),つかまる(11),にげる(11),みえる(11),うたう(10),さげる(10),ふる(10),まつ(10),やる(9),でる(8),ひらく(8),ゆれる(8),あらわす(7),おる(7),きく(7),きめる(7),つくる(7),つける(7),つれる(7),のびる(7),はいる(7),だす(6),つく(6),みつける(6),よむ(6),わかる(6),あげる(5),あそぶ(5),おく(5),かがやく(5),かける(5),くれる(5),すわる(5),とびだす(5),はしる(5),はる(5),ふえる(5),ふく(5),みせる(5),もつ(5),わらう(5),이하 생략.

위에서 제시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있다(59), 가다(43), 보다(38), 쓰다(34), 말하다(33), 하다(27), 살다(25), 만드다(24), 주다(20)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들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いう(83), ある(45),みる(35),する(34),くる(26),かく(20)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어, 양국 교과서 어휘에 있어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비교해 볼 때 상호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양국 교과서의 고빈도어들을, 한국의 경우는 있다(59), 가다(43), 보다(38),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いう(83), ある(45),みる(35)에 대한 실제 용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교과서〉

- (13) 울릉도는 독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2-1, p.27)
- (14) “백두산에 가면 ‘장생조’라는 약초가 있다고 들었네.(2-2, p.68)
- (15) 완성된 집을 보고 지우와 친구들은 즐거워 하였습니다.(2-2, p.53)

## 〈일본 교과서〉

- (16) 「でも来やしないよ。」がまくんが言いました。(2-2, p.12)
- (17) 黄色いバケツは、元のところにありました。(2-1, p.70)
- (18) くまの子とうさぎの子も、バケツを見にきました。(2-1, p.81)

한국의 경우에는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는 있다(59)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어 ‘있다’에 대응되는 ‘ある’가 45회나 사용되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양국 모두 이동 동사나 언어 4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해당하는 단어와 존재사,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점도 유사한 경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いう’(83)라는 동사가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 국어 교과서에서는 대화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1학년 교과서의 경우는 학습자가 문맥을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과 단어들을 반복하여 문장을 만들어 갔으나, 2학년 교과서의 경우는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한 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은 동사에 제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어휘 조사 결과를 통해 한·일 양국교과서에 사용된 단어들의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국어교과서의 구성 및 교과서가 갖는 언어적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4) 형용사

형용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132어, 전체어수는 316어로 평균적으로 2.39회 사용되었다. 일본의 경우 형용사는 이형용사와 나형용사를 구분할 수도 있으나 한국 교과서와 동일하게 하나의 그룹으로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개별어가 82어, 전체어수 206어로 2.51회 사용되어 한국과 일본 교과서간에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chi$ 自乘値 결과를 보면 한국 쪽이 전체어수 면에서 유의(有意)의 대(大)로 나타났다. 형용사의 경우 양국 교과서의 모두 사용빈도 2회 이상 모든 단어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교과서〉

좋다(25), 없다(20), 많다(16), 작다(11), 크다(8), 아니다(7), 아름답다(7), 같다(6), 무섭다(5), 예쁘다(5), 가엾다(4), 뜨겁다(4), 신기하다(4), 어리다(4), 웅다(4), 좋아하다(4), 중요하다(4), 필요하다(4), 깨끗하다(3), 나쁘다(3), 넓다(3), 높다(3), 더럽다(3), 멋지다(3), 빨갳다(3), 새롭다(3), 소중하다(3), 아프다(3), 이상하다(3), 착하다(3), 힘들다(3), 가깝다(2), 가난하다(2), 가볍다(2), 게으르다(2), 굵다(2), 길다(2), 누렇다(2), 다양하다(2), 두렵다(2), 따뜻하다(2), 무겁다(2), 바쁘다(2), 불편하다(2), 뾰족하다(2), 쉽다(2), 신이나다(2), 심술궂다(2), 아쉽다(2), 옹다(2), 우습다(2), 재미있다(2), 좁다(2), 좋아하시다(2), 지혜롭다(2), 차갑다(2), 축하하다(2), 커다랗다(2), 편찮으시다(2), 푸르다(2), 험하다(2), 이하생략

## 〈일본 교과서〉

いい(19), きいろい(14), まっかだ(8), しろい(7), ない(7), あかい(6), おおきい(5), かなしい(5), じょうずだ(5), たのしい(5), ひろい(5), うれしい(4), げんきだ(4), ながい(4), やさしい(4), あおい(3), あたらしい(3), えらい(3), おもい(3), おもしろい(3), くらい(3), ざんねんだ(3), ちいさい(3), いやだ(2), うつくしい(2), おそろしい(2), きれいだ(2), さまざまだ(2), さむい(2), すきだ(2), すばらしい(2), たいせつだ(2), たいへんだ(2), たかい(2), だめだ(2), つかまえにくい(2), つかまえやすい(2), つめたい(2), はげしい(2), はやい(2), ほしい(2), まずしい(2), まるい(2), 이하생략

한국 교과서에는 좋다(25), 없다(20), 많다(16), 작다(11), 크다(8), 아니다(7), 아름답다(7), 같다(6), 무섭다(5), 예쁘다(5) 등의 단어가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いい(19), きいろい(14), まっかだ(8), しろい(7), ない(7), あかい(6), おおきい(5), かなしい(5), じょうずだ(5), たのしい(5), ひろい(5) 등의 단어가 5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다. 위에 제시한 양국 교과서의 고빈도어들을, 한국의 경우는 좋다(25), 없다(20), 많다(16),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いい(19), きいろい(14), まっかだ(8)에 대한 실제 용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교과서〉

- (19) “와! 우리 지수가 좋은 선물을 받았구나.” (2-2, p.65)  
 (20) 크레용이 없는 칠성이는 방환이 것을 빌려 썼습니다. (2-2, p.117)  
 (21) 이 초대장을 보고 많은 동물이 몰려들었습니다. (2-1, p.95)

## 〈일본 교과서〉

- (22) きつねの子がもつのに、ちょうどいい大きさでした. (2-1, p.69)

(23) 黄色いバケツは、同じところにありました。(2-2, p.78)

(24) もみじの葉っぱもまっかだ나 (2-2, p.24)

형용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좋아하는 감정 표현과 색상, 양,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상위어로 조사 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에 비해 개별어수 전체어수 모두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8)</sup>

형용사의 경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어에는 이형용사와 な형용사로 대별되는 그룹이 있는데, 위의 어휘 조사 결과를 보면 な형용사에 해당하는 まっかだ(8), じょうずだ(5)가 빈도수 상위어로 조사되었고, 그 밖에 げんき다(4), ざんねん다(3), いや다(2), きれい다(2), さまざまだ(2), すき다(2), たいせつ다(2), たいへん다(2), だめ다(2)와 같은 단어가 2회 이상 사용되어 な형용사의 개별어의 사용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부사

부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207어, 전체어수는 510어로 평균적으로 2.46회 사용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개별어가 151어, 전체어수 321어로 2.13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 어휘가 일본 교과서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어수에서는 유의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전체어수의  $\chi$ 自乗値 결과를 보면 한국 쪽이 유의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사의 경우 양국 교과서에 2번 이상 사용된 개별어수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교과서〉

서로(15), 많이(13), 왜(13), 함께(12), 아주(11), 더(10), 또(10), 어떻게(10), 잘(10), 그만(9), 다(9), 가장(8), 거꾸로(8), 먼저(8), 모두(8), 바로(7), 이렇게(7), 아무리(6), 얼마나(6), 여러가지(6), 가득(5), 갑자기(5), 겨우(5), 그래(5), 꼭(5), 다시(5), 여러(5), 이제(5), 정말(5), 좀(5), 깜짝(4), 늘(4), 쉽게(4), 그냥(3), 그렇게(3), 드디어(3), 멀리(3), 빨리(3), 살짝(3), 소중히(3), 얼른(3), 오래오래(3), 점점(3), 조금(3), 주로(3), 직접(3), 참(3), 항상(3), 같이(2), 그대(2), 급히(2), 까맣게(2), 닳끔(2), 도저히(2), 똑바로(2), 마음껏(2), 마찬가지로(2), 마치(2), 만약(2), 매우(2), 모두들(2), 반갑게(2), 별떡(2), 비스듬히(2), 소중하게(2), 썩(2), 어서(2), 열심히(2), 와락(2), 잠깐(2), 제발(2), 지금(2), 진짜(2), 크게(2), 평소(2), 한참(2), 함부로(2), 행복하게(2), 훨씬(2), 흔히(2), 이하생략

#### 〈일본 교과서〉

みんな(23), よく(13), もう(12), そう(11), こう(10), まだ(9), ずっと(8), とても(8), すぐに(7), どう(7), たくさん(6), いちばん(5), いっしょに(5), いっせいに(5), すぐ(5), いっぱい(4), じっと(4), また(4), もっと(4), やっと(4), いつも(3), だんだん(3), ちょっと(3), どうして(3), どれぐらい(3), はやく(3),ほんとう(3), あまり(2), いったい(2), いっぱいに(2), おかげで(2), きっと(2), こんど(2), さっき(2), しずかに(2), ずいぶん(2), すっかり(2), たいへん(2), たのしく(2), ちゃんと(2), ちょうど(2), ていねいに(2), なぜ

8) 이(2004, pp.88-89)에 의하면,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기분, 정서, 대인감정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표현이 일본 교과서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なんだか(2), はっと(2), まず(2), ますます(2), むちゅうで(2), やがて(2), 이하생략

한국 교과서에는 부사의 경우 서로(15), 많이(13), 왜(13), 함께(12), 아주(11), 더(10), 또(10), 어떻게(10), 잘(10) 등의 9단어가 10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이며 2회 이상 사용된 단어수도 80개나 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みんな(23), よく(13), もう(12), そう(11), こう(10) 등 5단어가 10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이며 2회 이상 사용된 개별어수도 한국에 비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위에서 제시한 빈도 상위에 속한 단어 중 각각 3개의 단어들에 대한 사용 예문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교과서〉

- (25) 진딧물은 개미한테 먹이를 주면서 서로 돕습니다. (2-1, p.31)  
 (26) ‘고기야, 제발 많이 잡혀다오.’ (2-1, p.40)  
 (27) “지수야, 네가 왜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2-2, p.65)

〈일본 교과서〉

- (28) 「や、お日さま。や、みんな。おまちどお。」 (2-1, p.10)  
 (29) おとなにまけないくらい、よくはたらきました。 (2-2, p.94)  
 (30) もう半分は、おこりそうでした。 (2-2, p.55)

부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관계성(서로, 함께 등)을 나타내는 부사와 수량(많이, 모두, 다 등)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이유나 원인 방법(왜, 어떻게 등)과 관련된 부사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수량과 빈도(みんな, よく, たくさん 등)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もう, まだ, ずっと, すぐに 등)과 관련된 부사, 그리고 방법(そう, こう, どう 등)을 나타내는 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6) 보조동사

보조동사의 경우, 보조동사(~습니다/버니다), 보조형용사(~싶다), 접사(~었/았), 어미(~란다) 등을 포함한 모든 보조적 기능을 하는 단어들을 합산하여 조사하였다. 보조동사의 경우 한국은 개별어수가 107어, 전체어수는 1,577어로 평균적으로 14.74회 사용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개별어가 42어, 전체어수 1,624어로 38.67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조동사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가 개별어수는 많았지만 전체어수 면에서 사용 양상은 일본 교과서 쪽이 월등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i$ 自乗値 결과를 보면 개별어수에서는 한국교과서 쪽에 유의차가 발생하였고, 전체어수에서는 일본교과서 쪽에 유의차가 상당히 높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동사의 경우 한국교과서는 2회 이상 사용된 단어들을 그리고 일본교과서는 수량이 많지 않아 모든 개별어수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교과서〉

(1) 한국어(66개)

습니다(307), 었(119), 있다(105), 하다(101), 였(95), 버니다(92), 다(82), 았(70), 되다(46), 않다(42), 어요(42), 보다(38), 겠(33), 없다(32), 주다(27), 던(23), 말다(18), 입니다(16), 싶다(15), 자(13), 기(13), 계(12), 오

다(12), 지요(11), 이야(10), 단다(9), 잦아(9), 주시다(9), 이다(7), 구나(6), 네(6), 는지(6), 같다(4), 단(4), 버리다(4), 시오(4), 으며(4), 이지(4), 인가(4), 인지(4), 나요(3), 다오(3), 답니다(3), 두다(3), 시다(3), 아니다(3), 예요(3), 하시다(3), 가다(2), 거야(2), 군요(2), 노라(2), 는데(2), 달라(2), 드리다(2), 란다(2), 마시다(2), 모르다(2), 어야(2), 예요(2), 으니(2), 인걸(2), 인데(2), 치다(2), 텐데(2), 하나(2), 이하생략

〈일본 교과서〉

(2)일본어 (42개)

た(467), ます(414), いる(106), です(101), なる(67), ない(59), だ(52), ようだ(47), する(42), う(32), くる(31), ん(26), いく(18), れる(18), しまう(16), たい(13), くれる(11), そうだ(11), みたいだ(10), みる(9), ある(8), いう(8), だろう(6), よう(6), する(5), やる(5), いける(4), たり(4), みたい(4), られる(4), おく(3), させる(3), せる(2), ないで(2), もらう(2), らしい(2), おくれ(1), ず(1), だろ(1), っちゃ(1), なさる(1), ほしい(1)

한국 교과서에는 습니다(307), 었(119), 있다(105), 하다(101), 었(95), ㅂ니다(92), 다(82), 았(70), 되다(46), 았다(42), 어요(42), 보다(38), 겠(33), 았다(32) 등의 14단어가 30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이다. 반면에 일본어의 경우는 た(467), ます(414), いる(106), です(101), なる(67), ない(59), だ(52), ようだ(47), する(42), う(32), くる(31) 등 11단어가 30회 이상 사용된 고빈도어들이며 개별어수는 많지 않았지만 사용빈도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빈도 상위어에 속한 단어 중 각각 3개의 단어들에 대한 사용 예문을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교과서〉

- (31) 황새를 천연기념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2-1, p.24)
- (32) 간당간당 고갯말 누가 알아들었을까? (2-2, p.44)
- (33) “내 가슴에는 항상 새로운 물이 솟고 있단다.” (2-2, p.18)

〈일본 교과서〉

- (34) かえるくんは、大いそぎで家へ帰りました。 (2-2, p.7)
- (35) だんだんくろっぽい色にかわっていきます。 (2-1, p.21)
- (36) コスモスがみんなで歌を歌っているようです。 (2-2, p.52)

보조동사의 경우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정중형에 해당하는 보조동사 표현으로 한국어의 ‘ 습니다’(307)와 ‘ㅂ니다’(92) 그리고 ‘입니다’(16)를 합치면 415번 사용되어 1위가 되고, 일본의 경우는 ‘ます’(414)와 ‘です’(101)를 합치면 515회로 1위가 된다. 또한 과거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경우 한국은 ‘ 았’(119)과 ‘ 었’(95) 그리고 ‘ 았’(70) 등을 합치면 284회로 2위가 되며, 일본의 경우도 ‘ た’(467)는 2위가 된다. 또한 존재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경우 한국은 ‘ 있다’(105)가 3위 해당하고 일본의 경우도 ‘ いる’(106)와 ‘ ある’(8)를 합쳐 114회로 3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단정 표현에 해당하는 한국의 ‘ 다’(82)와 일본의 ‘ だ’(52), 행위를 나타내는 ‘ 하다’(101)와 ‘ する’(42), 그

리고 '되다'(46)와 'なる'(67) 등도 서로 비슷한 사용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기호

기호의 경우, 한국 교과서에 사용된 기호의 수는 개별기호 18개이지만 전체 사용빈도수는 무려 1,671회로 평균적으로 92.83회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개별기호 16개, 전체사용 빈도수는 2,102회로 평균 131.38회나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chi$ 自乘値 결과를 보면 개별어수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체어수에서는 일본교과서에 유의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양국 교과서에 등장하는 모든 기호를 제시해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국 교과서〉

##### (1) 한국어(19개)

.(808), ,(261), “(163), ”(163), ?(112), '(43), ‘(43), !(39), :(19), ○○(7), ……(4), □(2), '(1), ‘(1), ((1), )(1), ○(1), ○○○○(1), ……(1),

#### 〈일본 교과서〉

##### (2)일본어 (16개)

、(932), 。(774), 「(162), 」(162), ・(29), ((13), ) (13), 〈(3), 〉(3), ▶(3), —(2), —(2), 『(1), 』(1), —(1), —(1),

양국 교과서 모두 마침표(구점)(.)와 쉼표(독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은 유사한 양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교과서의 경우, 기호의 종류는 적지만 전체 사용 빈도수는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sup>9)</sup>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쉼표, 독점)가 261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808회 사용된 마침표에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수량이다. 즉 한국 국어교과서에는 사실상 하나의 문안에 쉼표가 사용되는 예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마침표와 쉼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기호는 대화를 나타내는 인용부호와 “(163), ”(163), 물음표 ?(112) 기호로 이들의 실제 한국교과서에서 사용된 예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 교과서〉

(37) 4월이나 5월이 되면, 어름치는 먼저, 강바다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2-1, p.33)

(38) 이제 숲속 동물들은 그곳에 툇툇이 웅달샘이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었어요.(2-2, p.19)

(39) “어부님! 어부님! 저희를 살려주세요.”(2-1, p.42)

(40) “소사랑게야, 너 왜 우니?”(2-1, p.11)

(41) “이 녀석아, 시도 안 짓고 왜 고기를 먹느냐?”(2-2, p.14)

위에 제시한 예 (37), (38)과 같이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쉼표(,) 사용이 매우 적었다.이것은 1학년 국어교

9) 송·이(2012, pp.100-101)에 의하면,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기호의 종류는 적지만 전체 사용 빈도수는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히 1학년 교과서에 마침표(.)가 477회 사용되었는데, 쉼표(,)는 무려 632회나 사용되어 하나의 문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쉼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서 연구에서도 지적인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경우 띄어쓰기가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과정도 아직 저학년임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상당히 긴 문에서조차 쉼표(.)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은 교과서 제작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물음표(?)의 경우는 대화 내용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마침표(.)가 774회 사용되었는데, 쉼표(、)는 무려 932회나 사용되어 하나의 문안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쉼표가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본교과서의 경우도 마침표와 쉼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기호는 대화를 나타내는 기호 「(162), 」(162)로 이들의 실제 일본교과서에서 사용된 예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 교과서〉

(42) はるかぜにふかれて、竹やぶが、ゆれるゆれる、おどる。(2-1, p.7)

(43) 「うん、さむかったね。」とささやいています。(2-1, p.5)

(44) 「よしよ、よしよ。おもたいな。」(2-1, p.5)

(45) 「おペンきよ。」と、かりんちゃんがいいました。(2-2, p.54)

위에 제시한 예 (42)와 같이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문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 중간에 쉼표를 찍어서 아동학 습자가 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화를 나타내는 기호(「, 」)의 경우는 3)동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어휘 조사 방법을 통해 교과서에 사용된 기호수를 조사하고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품사들과는 또 다른 국어 교과서의 전개 방법이나 체제 및 교과서의 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한·일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교과서 어휘비교를 통해 양국 교과서 어휘에 나타나는 언어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품사별로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명사에서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형식명사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교과서의 경우는 수(57), 것(26), 때(25) 등의 사용빈도가 높고, 일본교과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こと(59), ん(28), とき(27) 등의 형식명사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동식물 및 자연과 관련된 단어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말(30), 해(29), 호랑이(26), 달(24), 불개(23) 등의 단어가, 일본은 きつねのこ(45), しろうま(39), がまくん(21), かえるくん(19), はな(19), くまのこ(18) 등의 단어가 고빈도어들로 조사되었다.

2) 대명사에서는 양국 교과서 모두 인칭대명사의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우리(44), 내(42), 나(40) 등의 단어가 빈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 교과서의 경우에는 고빈도어로는 スーホ(37), だれ(29), すみれちゃん(26), ぼく(22), わたし(16), きみ(12) 등의

인칭대명사 사용 비율이 높아 한국과 거의 유사하며, 특히 일본 교과서의 경우 저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어노드=로벨(1), あおやまゆり(1), いしいむつみ(1), いちかわしゅん(1), うえだみや(1), うえむらとしお(1), おおつかゆうぞう(1), かわむらおさむ(1), きくらありさ(1), くだうなおこ(1), 〈중략〉, はせみり(1), ふるうちひかる(1), まど·みちお(1), みきたく(1), もりしたはるみ(1), もり야まみやこ(1), よだじゅんいち(1), 리어=리어시안(1), 등 28명이나 되는 저자가 등장하였다.

3) 동사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 존재의 유무를 나타내는 ‘있다’(59)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어 ‘있다’에 대응되는 ‘ある’가 45회나 사용되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양국 모두 이동 동사나 언어 4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해당하는 단어와 존재사,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점도 유사한 경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いう’(83)라는 동사가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 국어교과서에서는 대화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형용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주로 좋아하는 감정 표현과 색상, 양,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단어들 상위로 조사되었으며, 일본 교과서의 경우는 한국 교과서에 비해 개별어수 전체어수 모두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부사의 경우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관계성(서로, 함께 등)을 나타내는 부사와 수량(많이, 모두, 다 등)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이유나 원인 방법(예, 어떻게 등)과 관련된 부사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수량과 빈도(みんな, よく, たくさん 등)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もう, まだ, ずっと, すぐに 등)과 관련된 부사, 그리고 방법(そう, こう, どう 등)을 나타내는 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보조동사의 경우는 한·일 양국 교과서 모두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중형에 해당하는 보조동사 표현으로 한국어의 ‘습니다’(307)와 ‘입니다’(92) 그리고 ‘입니다’(16)를 합치면 415번 사용되어 1위가 되고, 일본의 경우는 ‘ます’(414)와 ‘です’(101)를 합치면 515회로 1위가 된다. 또한 과거형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경우 한국은 ‘았’(119)과 ‘었’(95) 그리고 ‘았’(70) 등을 합치면 284회로 2위가 되며, 일본의 경우도 ‘た’(467)는 2위가 된다. 또한 존재를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경우 한국은 ‘있다’(105)가 3위 해당하고 일본의 경우도 ‘いる’(106)와 ‘ある’(8)를 합쳐 114회로 3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7) 기호에서는 한국 교과서의 경우는, (쉼표, 독점)가 261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808회 사용된 마침표에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수량이다. 즉 한국 국어교과서에는 사실상 하나의 문안에 쉼표가 사용되는 용례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일본교과서의 경우는 문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 중간에 쉼표를 찍어서 아동학습자가 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화를 나타내는 기호(「, 」)의 경우는 동사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 내용을 인용하는 형태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일 국어교과서의 조사 범위를 3, 4학년 등으로 확대하여 양국 교과서 어휘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고와 같은 연구결과는 앞으로 초·중·고 일본어 교재 작성에 필요한 교육기본어휘 기초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송정식·이미숙(2012) 「한·일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어휘고찰」 『日本語學研究』 第34輯 韓國日本語學會 pp.89-105
- 윤재숙(2009) 「일본 국정교과서의 어휘교육에 관한 고찰」 『日本語教育研究』 16 韓國日語教育學會
- 이강민(2003)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어연구(2001-2002)-전문학술지의 연구동향」 『日本學報』 55-1 韓國日本語學會
- 장원재(2005) 「한국에서의 일본어 어휘교육연구의 현황과 과제」 『日語日文學研究』 52 韓國日語日文學會
- 정광순외(2010)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분석」 『초등교육연구』 23 한국초등교육학회
- 〈일본어〉
- 国立国語研究所(1952) 『語彙調査』 国立国語研究所資料集2 国立国語研究所
- 国立国語研究所(1964) 『分類語彙表』 国立国語研究所資料集6 国立国語研究所
- 国立国語研究所(1984) 『日本語教育のための基本語彙調査』 国立国語研究所報告78 秀英出版
- 国立国語研究所(1985) 『語彙の研究と教育(下)』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3大蔵省印刷局
- 国立国語研究所(2001) 『教育基本語彙の基本的研究(教育基本語彙データベースの作成)』 国立国語研究所報告 117国立国語研究所
- 島村直己(1983) 「小学校低学年用国語教科書の用語」 『研究報告集-4-』 国立国語研究所報告74
- 田島毓堂(1999) 『比較語彙研究序説』 笠間書院
- 中野洋(1981) 「『分類語彙表』의 語數」 『計量国語学』 12-8 pp.376-383
- 金直洙(2004) 「日韓 「基本語彙」의 比較研究—その選定及び意味分野別構造分析を中心に—」 『語彙研究叢書 1 比較語彙研究の試み11』 語彙研究会
- 李庸伯(2004) 「語彙의 比較研究—小学校国語教科書を用いて—」 『比較語彙研究の試み12』 (田島毓堂編) 語彙研究会
- 申玟澈(2001) 「日韓語彙의 对照研究—「小学校基本語彙」을 对照として—」 『開發·文化叢書37 比較語彙研究의 試み7』 名古屋大学大学院 國際開發研究科目
- 宋正植(2009) 「「中学校教科書」 語彙比較—意味分類別構造分析を通じて—」 『日本語教育研究』 16 韓國日語教育學會

## 〈 要 旨 〉

## 韓・日小学校2年生の国語教科書の語彙考察 - 品詞分類比較を通じて -

本稿では、韓・日小学校2年の国語教科書の語彙比較を通じて、両国教科書語彙に見られる言語の類似点及び相違点を明らかにしてみようとした。その結果を品詞別に簡単にまとめてみると次の通りである。

まず、名詞では、韓・日両国教科書共に形式名詞の使用が目立っている。韓国教科書の場合は、누(57), 것(26), 때(25)などの語が使用頻度が高く、日本教科書の場合も同様に、こと(59), ん(28), とき(27)などの形式名詞の使用頻度が非常に高い。代名詞では、韓・日両国教科書共に人称代名詞の割合が高く、特に韓国教科書の場合には、우리(44), 내(42), 나(40)などの語が頻度面で圧倒的に上位を占めており、日本教科書の場合には、스ー호(37), だれ(29), すみれちゃん(26), ぼく(22), わたし(16), きみ(12)などの人称代名詞の使用率が高く、韓国とほぼ同じような特徴を見せている。動詞では、韓国教科書の場合には、存在の有無を表す、「있다」(59)が多く用いられており、日本の場合にも韓国の「있다」に対応する「ある」が45回用いられて似ている傾向を示している。形容詞の場合には、韓・日両国教科書共に、好き嫌いの感情表現と色、量などを表す語が頻度面で上位語として使われている。なお、日本教科書の場合には韓国の教科書に比べて、異なり語及び延べ語共に少ない傾向を示している。副詞の場合には韓・日両国教科書で少し異なる様子を見せている。韓国の場合には、関係性(서로, 함께など)を表す副詞と、数量(많이, 모두, 다など)を表す副詞、そして理由や原因(왜, 어떻게など)に関連する副詞が多く使われている傾向を見せている。一方、日本の場合には、数量と頻度(みんな, よく, たくさんなど)を表す副詞、時間(もう, まだ, ずっと, すぐになど)と関連する副詞、そして方法(そう, こう, どうなど)を表す副詞が多く使わ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のである。補助動詞の場合には、韓・日両国教科書共に非常に似ている様子を見せている。丁寧形に相当する補助動詞の場合、韓国語の「습니다」(307)と「입니다」そして「입니다」(16)を合わせると、415回使われて頻度1位になり、日本の場合には、「ます」(414)と「です」(101)を合わせると、515回使われて1位となるのである。最後に、記号では韓国教科書の場合には、「。」(カンマ、読点)が261回使用されており、これは808回使用されている「。」(ピリオド、句点)に比べると確実に少ない量である。即ち韓国の国語教科書には事実上の一つの文の中で「。」(読点)の使用される用例が非常に少ないことが確認できるのである。一方、日本教科書の場合には、文が長くなると、途中でいくつかの「。」(読点)をとっており、児童学習者が文を易しく理解できるように配慮しているのが分かる。

論文分野：語彙

キーワード：初等学校、国語教科書、語彙、個別語数、全体語数

### ■ 송정식 · 이미숙 (宋正植 · 李美淑)

인하공업전문대학 조교수 · 명지대학교 교수

songjeongsik@naver.com · lms@mju.ac.kr

- 投稿日：2012年 12월 20일
- 審査開始：2013년 1월 21일
- 審査完了：2013년 2월 12일
- 掲載確定：2013년 2월 16일